

■ 음악 애호가의 안데스음악 사랑, 그 뒷이야기

한 필 웅



봄보. 일반적으로 야마(llama)라는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우리나라 월드뮤직 애호가들의 성향이 별난 것일까. 안데스음악 음반은 상송, 칸초네, 러시아 로망스에 이어 국내 월드뮤직 애호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 이 지역음악에 무관심한 이웃나라 일본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안데스 음악은 우리음악과 같은 5음계로 구성되어 ‘낮선 친숙함’이라는 어려운 심리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친근하게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봄보’(안데스지역의 북)의 리듬에 실린 비장미(悲壯美)가 우리네 ‘한(恨)’의 정서에 부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풀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영국의 Tumi, ARC, World Music Network, 프랑스의 Plyasound, Arion 스페인의 Discmedi 등의 레이블을 통해 안데스 음악 음반들을 수입하고, 두 장의 안데스 음악 라이선스 음반을 제작했다. 발매한 지 오래된 음반인데, 애호가들의 요청에 못 이겨 최근 두 장 모두 재발매를 할 만큼 많이 팔렸다고 한다. 제작 후기랄까? 힘든 음반시장에서 안데스음반이 각각 1만장이 넘게 꾸준히 팔렸으니, 그 과정을 공개하고자 한다.

8년 전의 일이다. 필자는 안데스 음악을 담은 <엘 콘도르 파



안데스의 콘도르. 사이먼 앤 가펩클의 ‘엘 콘도르 파사’로 널리 알려진 음악은 안데스의 전래 민요가 아니라 페루 작곡가 다니엘 아로미아 로블레스(Daniel Alom a Robles, 1871~1942)가 1913년 작곡한 노래이다.

사 El Cóndor Pasa〉 음반을 기획하고 출시했다. 영국의 월드뮤직 레이블에서 만든 여러 안데스 음반 중에 좋은 트랙을 선별하고 안데스의 악기와 음악에 대한 두툼한 해설지도 넣어 하드커버에 담아 제작했지만 그 과정은 험난한 길의 연속이었다.

부족한 자료, 책자 제작비, 케추아어와 아이마라(Aymara)어 번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과정 하나 녹록한 구석이 없었다. 그러나 더 고민스러운 문제는 마케팅이었다. 낯선 곳의 음악을 어떻게 소개하여 시장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에콰도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대퇴골(엉덩이에서 무릎사이의 뼈)을 잘라 피리로 만들어 불었다는 케나의 전설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꽤재를 불렀다. 이 전설을 마케팅 포인트로 하여 보도 자료를 만들고 방송과 인터넷에 알리기 시작했다. 음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안데스에는 유난히 콘도르에 얽힌 노래가 많은 사연, 폴 사이먼의



안데스의 전통 악기, 케나(quena)

‘철새는 날아가고’의 원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리면서 이 지역의 악기 케나와 삼포냐를 부각시켰다.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출시 당시에만 6천장 남짓한 음반이 팔렸고 최근까지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3년이 흐른 뒤, 월드뮤직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1집으로 〈안데스 Andes〉를 출시했다. 하드커버 표지에 케나의 운지법까지 담은 책자를 붙이고 안데스 문화, 음악, 악기, 연주자들을 폭넓게 소개했다. 이 음반 또한 대성공이었다. 지난 음반의 ‘케나의 전설’ 마케팅이 성공했으니 악기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으리라는 판단 아래, 이번에는 음악과 연주자 중심의 마케팅을 시작했다. 음악적으로 좀 더 세련되고 다듬어진 음악을 선별했음은 물론이다. 이 음반에는 인티 라이미(Inti Raymi)가 케나 솔로를 연주하는 ‘슬픈 구름’(Llaqui Phuyo)을 시작으로 로스 칼차키스(Los Calchakis)와 키만투(Quimantú)의 ‘키리에’(Kyrie), 키하르카스(K’jarkas)의 ‘울면서 떠나갔네’(Llorando se fue) 등 16곡을 실었다. 유명한 폴 사이먼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로스 잉카스(Los Incas) 그룹에서 활동했던 케나 연주자 우냐 라모스(Uña Ramos)가 연주하는 ‘엘 콘도르 파사’도 실었다. 전 세계의 음반사를 수소문하다 바르



케나의 명인, 우냐 라모스. 사진에서 연주하는 악기는 삼포나

셀로나의 작은 음반사에서 찾아낸 보물 트랙이었다.

특히 이번 음반에 실린 ‘울면서 떠나갔네’를 영화 <람바다>의 원곡으로 소개하자 소비자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꾸준한 인기로 성공을 거두었다. 무반주 케나 독주곡인 ‘슬픈 구름’은 방송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케나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애호가들에게 각인 시켰고 이 음반에서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는 안데스 음악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 음반으로 루미 야흐타, 로스 칼차키스, 키만투, 키하르카스 등 안데스 음악 아티스트들이 애호가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져 키만투는 2007년 내한 공연까지 오게 된다.

세월이 흘러 이 두 음반이 절판된 이후에도(보통 음반 라이선

스 계약기간은 3년이다) 애호가들은 끊임없이 재발매를 요구했고, 2007년 두 음반 모두 재발매될 만큼 인기를 얻었다. 그 후에는 모출판사와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서적과 음반을 동시에 같은 제목으로 출시했는데, 서적에서 언급한 곡을 담은 음반을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서적과 음반 모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요즘에는 스토리 텔링이라는 개념이 보편화 되었지만 두 음반의 마케팅 방식으로 택한 방법이 스토리텔링 비슷한 방법이었던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두 음반의 제작 과정에는 학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정보를 나누는 지속적인 ‘소통’과 학문적 도움이 없었다면 안데스 음악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필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안데스의 이야기들과 음악이 켜켜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토종 한국산보다도 더 우리 정서에 부합하는 안데스의 음악들이 대중화되고,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될 것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산학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가곡이 깊이만 추구하면서 학문의 영역에서만 평가되고 논의되다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애호가로부터도 멀어져 회복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잉카의 후예들이 간직한 이야기들과 음악들이 학술지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